

4차 교섭도 결렬...파업 사태 장기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협상
노조 “국힘, 합의 반복으로 무산”
기아 완성차 공장 부지 포화상태
광양항 화물트럭 진출입 봉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오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유류값 폭등 대책 마련, 화물안전 운임제 전면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한 화물연대와 정부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4차 교섭이 결렬돼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진전된 안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반복, 총파업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교섭 결렬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단언한 만큼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광주·전남 화물연대와 각 기업·관공서 등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4차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주말 이틀간 정부와 “타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접점을 모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도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해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에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반복했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

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면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계속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협상 결렬로 인해 광주·전남 주요 거점

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철수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광주·전남 화물노동자들은 5,500명(광주 2,000명·전남 3,500명)으로, 이들은 지난 7일 출정식 이후 광주지역 본부 10곳과 목포지부 9곳으로 흩어져 운송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안전운임제’ 개선 등이 보장될 때

까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만큼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아 오토랜드 광주(옛 기아차 광주공장)는 하루 약 2,000대를 생산하고 있지만, 카캐리어 운행이 중단된 상태로 완성차를 출하하지 못해 공장 부지가 포화상태다. 이에 관할 구청인 서구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총 3,986대를

직원들이 직접 출하하고 있다. 이날 화물연대 카캐리어지부 조합은 서구청을 방문해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발급해준 ‘임시운행허가증’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카캐리어 지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완성 자동차는 허가를 거부해야 하지만 적재함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트럭들도 움직이고 있다”며 “또 일부 국가로 수출하는 차량은 매년 등급이 우리나라 기준과 맞지 않은데도 도로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운행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과 수출용 임시운행허가증이 1일간 유효하지만 관공서 휴일인 지난 주말에 출하된 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모든 산업을 관공서 일정에 맞출 수 없어 금요일에 신청한 주말 운행에 대해서도 허가해줬다”면서 “차량 대수와 등록번호 확인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꼼꼼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양항과 여수산단 등 37곳에서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광양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컨테이너 공용 부두에 천막을 설치하고 화물트럭을 이용해 화물의 진·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하루 평균 1,500대의 차량이 반·출입했던 이곳은 파업이 시작된 후 차량의 이동량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다.

냉장보관 등이 필요한 곡물·발전소로 향하는 부품 등 긴급 물품만 일부 운송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수 없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대해 외쳤지만 정부는 파업에 엄정대응 하겠다고 오히려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면서 “화물차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서울대 자연계열 266점·전남대 의예과 279점

6월 모의평가 가채점 분석
전년도 수능과 난이도 유사

광주지역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서울대는 인문계열 271점 내외, 자연계열 266점, 전남대 의예과 278점, 조선대 의예과 276점 내외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광주지역 고등학교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영역이 어렵게 출제됐던 전년도

수능과 난이도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되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지역 전체 응시자는 1만83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500명 정도 줄었다. ‘국어’는 1만 785명이 응시했다. ‘화법과작문’은 8,260명(76.6%), ‘언어와 매체’는 2,525(23.4%)명이 응시했다. 수학은 전체 응시자 1만761명 중 ‘확률과통계’ 5,637명(52.4%), ‘미적분’ 4,606명(42.8%), ‘기하’ 518명(4.8%)의 분포를 보였다. 국어·수학·탐구영역 원점수 300점 기준으로 각 대학별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인문계열 271점 내외, 자연계열 266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인문계열 262점 내외, 자연계열 263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지원가능 점수는 262점 내외, 광주교대는 234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6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33점, 국어교육과 230점, 행정학과 228점, 경영학부는 224점, 정치외교학과 216점, 국어국문학과 213점 등으로 예측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78점, 치의학과 273점, 약학부 269점, 수의예과 263점, 전기공학과 248점, 간호학과 221점, 수학과 220점이다. /이나라 기자

“5·18 윤상원 열사 국민훈장 의미 남달라”

기념사업회, 정부 포상 평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변인으로 활약하며 최후 항쟁에서 산화한 윤상원 열사가 정부 포상을 받은 것은 의미가 남달라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상원기념사업회는 13일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추서는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윤상원 열사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목숨을 던져 대한민국의 민주와 평화,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치열했던 삶에 이번 훈·포장 수여가 자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젊은이들이 윤 열사를 통해 5·18의 정신을 새기고 더 나은 대한민국



국을 만들어 가는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5주년을 기념해 윤 열사 등 15명을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했다.

윤 열사는 광주시 광산구 천동마을에서 태어나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사망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홍승현 기자

<h3>장성 토지(매매 분양)</h3>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p>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앞)</p> <p>시세 → 9억 급매가 → 6억</p> <p>(충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휴,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h3> <p>기초반,중급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p>광산구 삼거동(임야)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향평면(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충남 서천군(근린주택) ▶ 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시외 전북 군산시(근린상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p>
--	---	--

010-6670-9800